

② 도시와 어촌의 교류 실태 및 사례 ③

체재형 체험관광을 확립-

시베츠정

1. 서 언

북해도의 동쪽, 네무로(根室)해협연안의 중앙부에 위치한 시베츠정은 인구 6,298명(2000년국세조사), 눈앞의 24km 바다 위에 북방영토 구나시리섬(國後島)을 바라보고 좌측에는 비경 시레토코(秘境知床)국립공원의 산줄기, 우측에는 겐세이(原生)화원과 단정학(丹頂鶴)특정천연기념물이나 백학(白鶴) 등 야생조류의 보고(寶庫)·노쓰케(野付)반도, 배후에는 우유마을의 웅대한 목초지군이 펼쳐져 있는 대략농향(大酪農郷)이 형성되어 있는 등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마을의 면적은 624.46km², 지형은 쿠시로(釧路)습지로부터 펼쳐지는 곤센(根釧)평야의 종착지로서 평야와 시레토코(知床)산맥의 기부가 되는 산줄기 등 바다, 산, 평야 다양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북해도다운 광대하고 흑한 추위에도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가진 국내굴지의 어획량을 자랑한다. 가을연어나 가리비를 주력으로 하여 약 50억엔을 어획하는 어업과 이것을 가공원료로 한 이쿠라(언어알 가공품), 연어가공, 가리비제품 등으로 약 100억엔을 제조·출하하는 수산가

공업에 의한 수산업과 광대한 목초지에서 약 2만두의 젖소에 의해 9만톤·85억엔의 우유를 출하하는 낙농업에 의한 '생산의 마을'이다.

2. 지역하사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危害分析重要管理点」를 계기로 모니터 투어

2000년 8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획·시장·가공·유통까지 지역에서 일괄하는 「하사프 방법」을 도입한 고도의 위생관리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산지식품종합시스템 「지역 하사프」가 시베츠어항을 키스테이션(key station)으로 스타트하였다.

이 시스템을 도시소비자 등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당시 수산기본법의 검토단계에서 제창되었던 「얼굴이 보이는 수산업」을 먼저 도입하여 소비자에 생산현장을 보여줄 것을 어업자 스스로가 제안하였다.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업자와 관광관계자와의 연대에 의한 「지역하사프체험 모니터 투어」가

기획되어 견학선으로 연어의 그물작업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어항안벽에서는 연어의 하역작업, 경매, 가공공장에서의 연어가공작업견학 등 어획~가공까지를 견학체험하고 마지막에는 연어알덥밥과 연어된장국 등으로 아침식사를 체험하는 내용이었다. 무료라는 소식과 함께 5회에 걸쳐 약 100명이 참가하여 대단히 좋은반응을 일으켰다.

「항구는 비릿내 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시베츠항에서는 비릿내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청결한데 감탄하였다. 하역된 연어가 탱크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놀랐다. 시베츠의 연어는 상품가치가 있어 가격이 비싸도 안심요금이라 생각하고 사겠다.」라는 참가자로부터 기분 좋은 감상도 들었으므로 산지현장을 소비자에게 보인 효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평소 어업관계자 이외에는 보지 못하는 어항에서의 하역작업도 지역하사프설명 등의 안내인이 있으면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결과를 계기로 어업자 등 수산관계자의 의도와 체재관광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관광관계자의 희망이 일치하여 본격적인 '마린투어리즘'의 실천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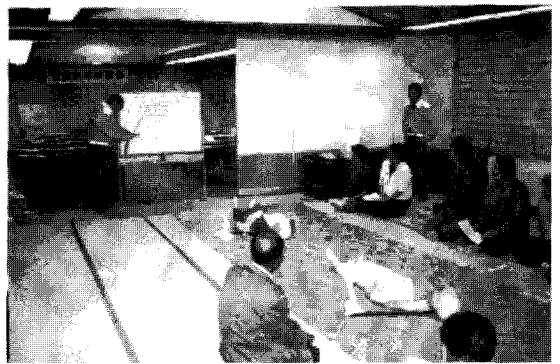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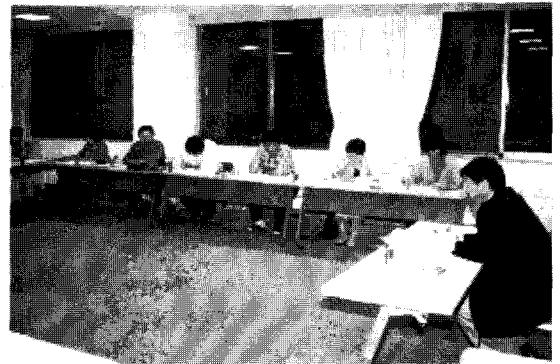
3. 산업과 연대한 본격적인 체험교류에 마을이 전력을 다하다

(주민 관광가이드의 양성)

모니터 투어에서 안내인의 필요성이 입증되어 관광 유람이 아닌 본격적인 체험으로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이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서 미리부터 관광협회가 추진하고 있던 「관광가이드 양성강습회」를 의욕을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다.

2001년 2월에는 동경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틀 간에 걸쳐 10시간의 커리큘럼을 실시하였던 바 공모에 응한 주민 50여명이 수강하였다. (강습회는 2002년 3월에도 개최)

수료자는 그후 지역의 어업이나 농업 스터디회, 어항 등 현지에서 실지연수, 만일에 대비한 응급구명강습 등을 수강하였다.



〈사진-1〉 주민관광가이드양성강습회

여기에 각자 잘하는 부분의 전문기술이나 지식과 본인의 하고자하는 의욕적인 신청을 받아 현재 35명의 주민이 관광협회에서 「주민관광가이드」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주민관광가이드협회가 주체적으로 설립되었고 체험교류를 받아들이는 조직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조직의 설립)

2000년 9월의 체험모니터투어의 성공이 단숨에 마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으로 가속화되어 행해졌다.

무엇보다 어업자측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어 왔던 만큼 이미 수산에 관한 생산현장의 견학은 오픈된 상태였기 때문에 관광업계측은 간절히 바라던 상태였다. 오랜기간 관광관계자의 아이디어단계에서 생산현장과 조정이 되지 않아 햇빛을 보

지 못했던 그물작업의 견학 등 어항의 개방은 '지역하사포'라는 선진적인 대처에 의해 산지의 책임과 신뢰를 쌓아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나 수산의 리더들이 자신의 손으로 개방하였던 것이다. 이결과 2001년 5월에는 마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또 하나의 기간산업인 낙농업의 참가도 계획에 넣어 「마을이 전력을 다한 산업과 자연이 연대한 투어리즘」의 실천조직으로서 마을에코·투어리즘 추진협회를 설립하였다.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등 기반만들기)

활동초년도인 2001년은 활동의 기반만들기로서 그물작업견학을 위주로 하면서 산지만의 체험개발을 협회회의 실천조직인 간사회에서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29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것을 팸플렛으로 만들어 여행에이전트사 등에 홍보하였다.

(시험적으로 받아들인데 대한 효과)

인수 기반을 정비하면서 시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6월하순에 기후현(岐阜縣) 이자라(伊自良)중학교 45명의 수학여행과 삿보로(札幌)로부터 파크골프 애호자에 의한 플레이 투어 24명, 젠니크(全日空)스카이홀리데이의 여름휴가 가족여행플랜 17명 등 계 5회 86명을 에코투어리즘협회 유치사업으로 받아들였다.

가리비의 껍질벗기거나 연어의 찬찬구이 등 향토음식의 체험이나 새벽의 어시장견학, 연어잡이 어부들의 숙소에서 아침식사체험, 북방영토학습, 그지역 애호가들과의 교류파크골프대회 등 체험프로그램의 일부를 실시하여 교류자의 반응이나 프로그램의 완성도, 현지에서의 렌탈물품 준비 등 귀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에 의해서 먼저 관광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체험학습으로서의 사회학습이나 학교교육의



〈자료-1〉 시베츠정 체험프로그램의 신문기사

‘체험교류의 목적지’로서 수산체험이 호평 받은 것과 많은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는 이유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4건의 ‘분산숙박’이 가정적인 접대 중에서 시베츠지역의 생활모습 등을 보고들을 수 있어 「숙박지에서의 생활도 어촌체험의 한가지가 되었다」는 감상을 들은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작은마을이라서 가능한 사람과 사람사이의 세심한 교류」에 활로를 찾아 자신감을 높였다.

4. 2002년도 실적과 내용

그후 이 실적을 근거로 수학여행 학습체험상품으로서 홍보활동을 한 보람이 있어 2002년도에는 2년째 되는 기후의 이지라중학교를 포함, 4개교의 수학여행 등 11건 약600명의 숙박과 12체험프로그램으로 1,519명의 체험이 실현되었다.

다음 이 체험의 모형을 수학여행의 실적을 기초로 소개하겠다.

① 향토음식문화와 북쪽바다의 체험

먼저 6월에 2년째가 되는 기후현의 이지라중학교이다. 이 시기 시베츠의 어업은 천연 가리비 잡이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연어의 치어가 바다로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가리비 잡이와 연어의 치어방류를 체험하였다. 가리비잡이는 어협 청년부와 상공회청년부가 고안하여 5월하순에 열리는 마을의 3대축제의 하나인 「시베츠 싱싱한 가리비축제」의 인기행사이다.

잡아 올린 가리비는(한사람 2마리정도) 학생 각자가 여관에서 지도를 받아 「조개껍질 벗기기 체험」을 한다. 이후에 향토요리인 연어의 찬찬구이 강습도 받는다. 다음날은 지역주민의 체험담 등을 듣는 ‘북방영토학습’이다. 구나시리섬을 바라보는 해안 근처에 설치된 북방영토관에서는 전

쟁전 섬에서의 생활이나 현재 러시아 섬사람들의 생활 모습 등을 전시로 배웠다. 또한 유어선에서의 낚시 체험이나 해상에서 구나시리섬도 관찰하였다.



〈사진-2〉 가리비 잡이를 체험하고 있는 이지라중학생

이 학교는 「시베츠의 식문화를 전달한다」라는 취지로 학교행사중에서 체험한 찬찬구이를 재현하여 재학생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② 호쾌한 연어·송어를 견학선으로 관찰

어협과 어업자의 계획으로 체험프로그램의 핵심인 3척의 그물작업견학선이 운행하고 있다. 가급적 정치망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선외기의 소형선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정원이 12명이지만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춤추는 근접 체험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흥분하였다. 새벽4시~5시 이른 새벽의 승선이지만 맑은날에는 구나시리섬에서 떠오르는 아침해에 2번의 감동을 맛볼 수 있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경험이 되었다.

2002년 시즌은 그 지역의 초등학생·중학생과 동경에서 이것을 위해 급히 달려 온 부부 등, 5회 운행으로 60명이 이용하였다. 이후 지명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가족이나 그룹의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③ 북쪽 에코스쿨로 현지에서도 감동

「지역하사트는 생명을 기르는 교육과 일치합니다」라고 교토(京都)·성모학원초등학교 구스이(楠井)교장선생의 흔쾌한 승낙을 얻어 9월 5, 6, 7일 제1차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80명, 13, 14, 15일에는 제2차는 81명의 수학여행을 실현하였다.

인술을 포함 일회에 87명의 대인원이 2박3일의 체험이었다. 첫날은 사문 과학관에서 연어의 일생을 배우고 이튿날에는 새벽4시에 기상 5시에는 10인정도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시베츠어항의 연어하역작업을 주민관광가이드의 인솔하에 견학하였다.

통째인 연어 약 3천마리를 어창에서 쉬지않고 크레인앞에 붙어있는 산대로 길어 올려서 선별대로 내린후 기다리던 어부들이 급히 암·수로 나누어서 배후에 선별대로 보낸다. 어부들 20여명이 바쁘게 각 포지션을 담당하여 연어가 이동되고 최종에는 해수와 얼음이 들어있는 사각의 탱크에 들어간다.

졸린듯한 어린이도 대량의 은색 연어를 가까이서 보고 놀라는 표정을 하며 잠이 달아난다. 연어의 살아있는 모양에 흠칫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으나, 가이드와 함께 암·수의 다른점을 관찰하거나 한 마리의 무게, 복부의 온도측정 등을 체험하면서 익숙해져 개중에는 가슴에 연어를 안고 좋아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연어가 잘라놓은 토막의 이미지에서 한마리 통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귀중한 체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의 틈을 타서 어업자들과 접촉하는 시간에는 「이침 몇시에 일어나느냐?」「일은 힘들진 않느냐?」등의 단순하고 솔직한 질문을 하였으나, 그후의 감상에서 「시베츠는 아름다운 경치만이 아니라 혹독한 자연을 상대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라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 어둑한 새벽부터

어항에서 일하는 어업자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는 것이다.

그후 가공공장에서 연어가공견학이나 이쿠라 만들기 체험, 추우루이(忠類)강에서 연어낚시와 낙농가를 방문하여 착유(搾乳)견학 등 하드스케줄을 소화해 내었다.

밤에는 어협여성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연어의 찬찬구이 파티를 열었다. 연어 정말 좋다고 연발하여 스태프의 피곤함도 날라가 버렸다.

다음날 출발식에서는 어린이들로부터 진솔한 즐거움과 감사의 말에 중심이 되어 활약한 가이드들의 눈에서는 빛나는 것이 보였다. 떠나가는 버스에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어 어린이들로부터 받은 감동에 감사하고 있었다.

④ 이쿠라, 맛있는 연어알젓 체험

이쿠라 만들기 체험을 한 동경에서 온 여자중학생은 엄격한 위생관리에 이해를 표시하고 연어알젓을 만드는 공정중 손으로 직접 주무르는 작업에서는 탄력 있는 알에 놀라고 만들어진 신선한 오렌지색에 감동하여 먹으면서 매우 기뻐하였다.

연어알젓 만들기도 체험한 오오사카(大阪)의 남자고등학생은 진짜 어부(어협청년부원)의 기초부터 가르침에 매우 진지 하였다. 어려운 아가미 제거, 조심스러운 세정, 맛을 결정하는 생선의 소금뿌리기까지의 일체를 손에 소금을 묻혀가며 도전하였다. 완성한 연어알젓은 각자의 가정으로 배달되었다. 「집에 돌아가서는 부모님에게 자랑할 것이다, 「가족과 같이 먹을 생각을 하니 즐겁다」 등의 솔직한 감상이 좋았다.

이 체험은 수입된 양식의 연어가 식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자연양식의 일본산 연어의 공급산지로서 지금부터 소비를 담당할 젊은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파악하고 있다.

틀림없이 이쿠라도 연어도 맛있었던 것이겠



〈사진-3〉 교토성모학원 초등학교의 어항견학

지요.

소비자에 대한 착실한 산지어필이 이후 꾸준한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5. 결 언

우리들의 노력은 아직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으

므로 많은 과제와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의 인원수가 부족하다던가, 체험 전용시설이 필요한 것 등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이후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거대한 장애물이었던 생산활동의 견학과 체험의 문이 열림으로써 이후의 과제는 모두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베츠어협(佐賀)조합장은 「안전성의 홍보는 물론 소비자인 관광객의 눈이 있으므로 어업자는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일

에 중사하고 지금보다 더욱 자신들의 노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라고 효과를 말하고 있다.

관광협회로서도 「서투르게 치장하지 않고 주민 하나하나가 생활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진지하게 대처하면 관광객도 만족해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발말에 있던 얻기 어려운 산업자원을 살려서 마을의 캐치플레이즈로 「썩트는 바다와 대지, 상쾌한 교류의 고향」의 실현에 또 한발 다가갔다.㉔



〈사진-4〉 이쿠라 만들기 체험